

북남관계개선을 차단하려고 발악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리영환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사와 기자가 나눈 대담

기자: 최근 미국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이로 말미암아 관계개선의 기류가 흐르던 북남관계도 엄중함 도전에 부딪혔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조선통일의 악랄한 방해자가 아닌가.

리영환: 미국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장본인이고 통일을 방해하는 주범이며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일제의 패망이후 《해방자》의 말을 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에 의해 수천년 동안 한강도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오던 조선민족이 인위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38° 선은 철저히 미국에 의해 고안된 선이다. 조선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며 뻗어 간 이 원한의 분렬선에 의하여 514개의 부락이 사라지고 8개의 군과 122개의 마을이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되었으며 강하천, 철도와 도로들이 두동강나고 우리 겨레는 민족분렬의 가슴아픈 비극을 겪게 되었다.

우리 민족은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원자탄

공갈의 악몽을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1950년 11월 30일 미국대통령 트루먼이 조선전선에서의 원자탄사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데 이어 그해 12월 미국동군 사령관 맥아더는 《조선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복도지대 형성》을 폭언했다. 미국의 원자탄공갈로 하여 전쟁기간 조선반도에

서는 북으로부터 남으로 흐르는 《원자탄피난민》행렬이 생겨났다. 가족과 함께 움직일수 없는 많은 집들이 서 가문의 대를 이으려는 일념으로 남편이나 아들만이라도 남쪽으로 피난보냈다. 이렇게 되어 생겨난 수많은 홀어진 가족, 친척들이 오늘날 조선반도의 북과 남에 갈라져 살고있다.

기자: 미국은 지난 기간 북과 남사이에 화해의 국면이 조성될 때마다 그에 쫓겨 치며 집요하게 방해해나서지 않았는가.

리영환: 그렇다. 지난 근 70년간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단합을 위해 북과 남, 해

외의 온 겨레가 피라는 노력을 바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옹당한 결실을 맺지 못한것은 미국의 민족분렬리간책동에 중요하게 기인된다. 역사적인 7.4공동성명이 발표되어 북남사이에 통일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갈 때 조선의 영구분렬을 꾀하며 우리 민족의 들끓는 통일기운에 찬물을 끼얹은것도 미국이며 1991년 《북남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을 때 도발적인

결을 적극 사측해왔다. 그런가하면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에 대해 《악의 축》, 《불량배국가》, 《테로국가》, 《폭정의 전조기지》로 악의에 차서 헐뜯으며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왔다. 바로 얼마전 케리 미국무장관을 꺾으며 우리 민족의 《악의 나라》이니 뭐니 하고 중상한것도 그 일환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 우

부터 미국이 벌려온 《림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그 후 《련합전시증원연습》으로, 다시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으로 명칭만 바뀌었다. 《독수리》 합동군사연습 역시 1986년부터 미국이 해마다 감행해온 대규모의 침략적인 핵공격작전연습이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공화국을 무력으로 공격하기 위한 북침예비전쟁, 핵전쟁연습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위협과 발광적인 핵전쟁도발책동은 명백히 북남사이의 화해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반도를 핵전쟁참화의 불길에 몰아넣으려는 가장 로골적인 핵전쟁도발행위이다.

이 땅의 평화는 온 민족의 단합된 투쟁으로만 지켜낼수 있다. 평화없이 북남관계의 진전한 발전도 북남공동선언의 성과적리행도 기대할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미국의 간섭과 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는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한다는 투철한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굳게 단합할 때 조국통일위업은 앞당겨 성취될것이다.

정정당당한 자위적훈련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공화국의 전략군부대들은 화력별단위로 정상적인 훈련계획에 따라 공화국의 령토에서 로케트발사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이를 두고 《의도적인 긴장조성》이니, 《도발》이니, 《유엔안보리사회결의위반》이니 하면서 마치 큰일이나 난듯이 법석대고있다.

무지와 편견에 물젖은 미국의 상투적인 또 하나의 반공화국도발이라 평하지 않을수 없다.

이번에 공화국의 군대가 로케트를 발사한것은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훈련의 일환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미싸일을 개발하여 자기의 령토나 령해에서 발사연습을 하고있다는것은 알려진 상식이다. 더구나 세계에서 해마다 각이한 종류의 미싸일을 제일 많이 발사하는 나라가 다름아닌 미국이다.

지난해 5월에도 미국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탄두를 탑재할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싸일 《미니트맨-3》의 발사시험을 거어이 강행하였다.

그런데 저들의 미싸일발사는 물론 다른 나라들의 미싸일발사훈련에 대해서는 조금도 반용이 없던 미국이 오직 공화국의 정상적인 로케트발사를 두고 이

리공저리공 하는것이 과연 타당한 립인가.

도발은 오히려 미국이 하고있다. 미국이 주동이 되어 공화국을 겨냥하고 벌리는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바로 악랄한 반공화국도발이며 미정계의 어중이며중이들이 그 누구를 《악의 나라》로 함부로 헐뜯는것이 바로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반공화국당발이다.

더우기 공화국의 로케트발사훈련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평화수호를 위한 주권국가의 정정당당한 자위적권리행사이다.

남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전에 제 손에 묻은 때를 보라고 했다.

미국의 《도발》 타령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저들의 북침핵전쟁책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의 화살을 탄대로 돌려세우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최대로 격화시켜 북침전쟁도발의 기회를 만들려는 범죄적기도의 산물이다.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조치는 누구도 시비할수 없고 막을수도 없다. 미국은 사실대로 보고 말하는 법부터 배우는것이 좋을것이다.

김철호

미 국 은 똑 똑 히 알 라 리 철 준

날아올랐다 대지를 박차고 하늘높이 솟구쳐올랐다 우리의 로케트들 선군조선의 자주권을 시위하며	걸쭉하면 무장침략선과 정찰기들을 매없이 침입시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자들 과연 누구였던가
단 한치의 편차도 없이 가장 안전하게 가장 정확하게 정해진 목표수역에 도달한 우리의 로케트들 자랑스럽다 존엄높은 선군조선의 위력	그것은 바로 미국 불지른 놈이 불이야 하듯 그 누구의 《도발》을 떠들고 그 누구의 《위협》을 떠드는 그 께변 밝은 이 세상에 통하리라 망상하는 그 생각조차 가소롭다
허나 때를 만난듯 정정당당한 우리의 발사훈련에 《도발》과 《위협》의 모자를 씌워 악랄하게 헐뜯는자들이 있다 우리의 자주권을 비방하는자들이 있다	누워 침벨기란 말이 있다 화는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거짓과 날조로 정의를 말살하고 세상을 속여보려는 그 악습 특특한 대가를 치르게 됨을 미국은 똑똑히 알아야 하리
보라, 누구인가 제 땅도 아닌 남의 땅에 침략무력을 주둔시키고 제 바다도 아닌 남의 바다에 핵잠수함을 들이밀어 핵전쟁연습에 미쳐날뛰는자들	두말달라 더이상 공화국의 자주적권리를 모욕하고 훼손시킨다면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의 분위기에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악담으로 찬물을 끼얹는다면 결단코 용서치 않으리라
홀려간 역사를 돌이켜라	

본사기자

미국은 입이 열개라도 말할 자격이 없다

재미동포언론인이 주장

미국이 추종세력들을 끌어들이 일으킨 침략전쟁이었다. 미국은 더이상 할 말이 없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 중동나라들을 침략하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하면서도 거짓말로 변명해온 나라가 바로 미국이 아닌가.

3일에는 핵잠수함 《콜럼부스》호를 합동군사연습에 참가시키기 위해 남조선의 부산에 입항시켜 전쟁위기를 조장하면서도 《북의 비핵화》를 떠들고있다. 이 얼마나 기만적인 자세인가.

같은 남조선당국이 지금이 라도 미국과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고 외세우선이 아니라 민족우선의 립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서면》호와 《콜럼부스》호

봄을 맞는 사람의 마음은 자연히 산이나 강으로 쏠리게 되는 모양이다.

하루일을 마치고 봄기운이 느껴지는 대동강변을 따라 저녁산책의 길을 걸고있을 때였다. 총성의 다리주변의 유보도를 거닐던 나는 문득 마주오는 청년대학생들의 열연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미국이 아무리 날뛰어도 《서면》호의 신세를 면할수 없지.》

《아무렴! 헌데 그놈의 격침비는 또 어디다 세운다?!》

위에서 울리는 통쾌한 웃음소리...

매없이 발동하게 되는것이 기자의 호기심일지.

알고보니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인 그들은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위해 최근 남조선의 부산에 기여든 미핵잠수함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던것이다.

《서면》호와 미핵잠수함. 단순생활이나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해 하는 대화였다.

《서면》호로 말하면 4문의 대포와 중기기관과 뿔을 겸용하고 추진기까지 달린 19세기 당시로서는 가장 발전되었다고 하는 미국의 무장함선이었다.

1866년 7월 조선의 해역에 침입하여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세상에 맞설

대상이 없는것처럼 놀아대며 비뚤어진 정탐과 수심측량을 하듯 못해 부녀자들을 통용하고 인민들을 마구 살해하거나 략치하는 만행을 감행하던 《서면》호는 침략자들의 오만무례한 행위에 격분한 평양군민들의 결사항전에 의해 마침내 불에 타 대동강에 처박히고 말았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어느덧 150년 가까이 흘러갔고 세상은 많이도 변했다.

하지만 세월과 더불어 모든것이 변하고 바뀌어도 한가지만은 변하지도 바뀌지도 않은것이 있으니 그것은 미국의 조선에 대한 침략야욕이다.

미국의 핵잠수함 《콜럼부스》호 역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었다는 군사장비와 기술을 자랑하고있다.

이런 잠수함이 또다시 남조선의 부산항에 기여들었다. 북침선제공격을 노린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기 위해서이다.

공화국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이다. 대동강의 푸른 물처럼 순결무구하고 깨끗한것이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런데 미국은 핵잠수함까지 들이밀며 공화국을 어찌보려 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을 거어다시 울리고 우리 민족에게 재난을 들춰우려고 발광하고있다.

라민족의 고통과 재난에서 재미를 느끼는 미국이다.

그렇게 미국은 라민족을 희생시키며 살아왔고 우리민족에게도 세기를 이어 재난과 불행을 강요하고있다.

침략의 불꽃을 질고 부산항에 기여든 핵잠수함 《콜럼부스》호는 현대판 《서면》호의 다른것은 아니다.

발결음은 어느덧 《서면》호 격침기념비에 이르렀다.

이 격침비를 다시 보느라니 대양건너 미국이야말로 조선인민의 세기를 이어온 철천지원수이며 이 침략의 무리들에게는 오직 수치와 부끄러움이 차례질것이라는 생각이 가슴을 찔다.

그렇다. 미국이 아무리 현대적인 전쟁장비와 살륙수단들로 공화국을 어찌보려고 해도 정의에 불타고 애국에 용맹한 우리 민족은 아름다운 이 강토를 반드시 수호하고야말것이다.

나의 이런 생각을 확증이나 하듯 저녁노을이 물들기 시작한 대동강가로 한편의 노래가 은은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

행복북친 강가에 포성이 울면/우리는 싸움길 떠나가리라/대동강물 가득히 야전물통에/소중하게 넣고서 떠나가리라/아... 대동강아 너를 지켜써주라

본사기자 박철남

도 발 자 는 과 연 누 구 인 가 ?

절면피한 《도발》 타령

미국이 우리 군대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인 로케트발사훈련을 두고 그 무슨 《저강도도발》이요, 《유엔안보리사회결의위반》이요 뭐요 하며 악의에 차 헐뜯고 못되게 놀아내고있더니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인공위성을 쏘올리고 미국 역시 수많은 미싸일시험을 했을뿐아니라 얼마전에는 남조선에 핵잠수함까지 들이밀었다.

우리의 평풍, 우리의 령해, 우리의 령토를 위주로 하여 진행한 로케트발사훈련이 《도발》이라면 남조선의 땅과 바다, 하늘에서 벌려놓고있는 미국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훈련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로케트발사훈련에 대해

서 《도발》이라고 걸고드는 철면피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도발》타령에 뺨소를 금할수 없다.

원래 미국족속들이라는것이 철면피하기 그지없는 족속들이다. 제 버릇 못 준다고 남의 나라 땅을 침략하면서 도 낮새 하나 변하지 않고 그 무슨 《자유수호》요, 《반테로》요 하는 레플로아

우리의 자위적인 로케트발사에 대해 불맞은 송아지마냥 날뛰며 《도발》이요 뭐요 하는 미국의 추태는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속담그대로이다.

남의 땅에 핵함선까지 끌고와 북침불장난소동을 벌리면서 도 립끝만 한 동의식도 없이 오히려 평화적인 공화국을 감히 헐뜯는 미국이야말로 파렴치한 강도의 나라이다.

들이 아무리 우리를 걸고들며 《도발》타령을 늘어놓아야 그에 귀기울일 사람은 없다.

미국은 세기를 이어 우리 청년들과 인민들의 가슴속에 흠여넘치는 미국에 대한 충요와 복수의 마음을 똑바로 알고 어리석게 놀아대지 말아야 한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평양시위원회 지도원 김경일

우리가 단거리로케트 몇발 쏜것을 두고 법석 떠드는 미국일진대 우리가 더 큰것을 쏜다고 하면 까무라치지 않겠는지 걱정된다.

미국이 아무리 우리를 걸고들며 《도발》이니 뭐니 하며 앵무새처럼 놀아대봤자 《초대국》이라 자처하는 저들의 체면이나 깎이지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다.

김형직시범대학교원 김학성

세계가 보는 악의 나라는

지금 미국은 우리 나라를 《사악한 곳》, 《악의 나라》로 헐뜯고있다.

도대체 악이 무슨 말인지 알거나 하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가 하는것이다.

우리 조선말사전에 는 악이란 도덕적으로 못되고 나쁘며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되어 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나라이다. 미국의 초고층 아파트일에는 실업자, 집없는 방랑자들이 수두룩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온갖 국가적행력을 받으며 복받은 삶을 누리고있다.

새가 사는 창전거리도 평양시 한복판의 제일 경치좋은 곳에 자리잡은 거리로서 이곳의 현대적인 고층상림집들에서는 로동자, 사무인

을 비롯한 평범한 인민들이 살고있다. 문수물놀이장, 미림축구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등 도처에 꾸려진 인민을 위한 체육문화시설들에서 기쁨과 생활의 향만을 꽃피워가고있는것도 인민들이다.

그런데 이런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나라를 《악의 나라》라고 헐뜯고있으니 적대시대결판념이 골수에 찬 비방증상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흰것도 검다고 하는 미국, 살인과 강도와 같은 무서운 범죄들이 꼬리를 물어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수 없는 나라. 다른 나라들에까지 침략과 겁질의 마수를 뻗어 짓밟고 죽이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애당초 생겨나지 말았어야 할 악의 나라이다.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35인민반 리성희

미 핵 잠 수 함 의 입 항 을 규 탄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이 4일 서울의 미국대사관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제침략군 핵잠수함의 부산입항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3일 미해군 7함대소속 핵전략잠수함인 《콜럼부스》호가 기함인 《블루

남조선단체가 항의

《릿지》호와 함께 부산항에 기여든데 대해 언급하였다.

남북사이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있는 때에 세계 최대급의 군사연습을 강행하고있는것도 모자라 핵전략무기까지 투입하며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언명하

였다.

남조선과 미국이 대화국면을 대결국면으로 되돌리는 전쟁연습을 즉시 중지하고 공격무기들을 철수시킬것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조선반도평화를 가로막는 모든 군사적행동을 중지하고 평화협상을 시작해야 할것이라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